

遼寧~吉林地域 靑銅刀子の 型式과 時空間的 樣相

吳江原*

목 차

- I. 머리말
- II. 형식분류
- III. 공반관계와 편년
- IV. 맺음말

< 요약 >

청동기시대 요령~길림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을 위시한 특징적인 청동기유물이 유행하였는데, 이중 청동도자는 기존의 특징상 청동기화의 진행수위와 관련 유물복합의 경제활동을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청동도자를 손잡이부의 형태를 제1기준으로 하여 鈕柄銅刀(A형), 食刀柄銅刀(B형), 匙柄銅刀(C형), 獸柄銅刀(D형), 齒柄銅刀(E형), 釘孔柄銅刀(F형), 穿孔柄銅刀(G형), 環首銅刀(H형), 鈎柄銅刀(I형), 鈴首銅刀(J형)의 10개형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위의 형종 다른 형에 비해 제작기간이 길거나 속성의 폭이 넓은 獸柄銅刀, 齒柄銅刀, 穿孔柄銅刀, 環首銅刀의 경우, 손잡이부와 손잡이 머리부의 세부적인 차이에 따라 2~3개 형식으로 세분하였다.

요령~길림지역 청동도자의 공반유물은 기술적인 혁신과 시대성을 강하게 띄고 있는 유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5개의 공반단계로 획기된다. 제I단계는 魏營子和 高臺山類의 유물 및 고식의 청동손칼(DI, EII, G, III, J)이 공반하는 단계로서 시간범위는 기원전 12~10세기이다. 제II단계는 비파형동검 관련유물과 I단계 보다 발달된 형식의 청동도자(A~D, EII, EIII, I)가 공반하는 단계로서 기원전 9~8세기 중반이다. 제III단계는 비파형동검과 청동검병 및 새로운 형식의 청동도자(EIII, F)가 공반하는 단계로서 기원전 8세기 후반~6세기 전반이다. 제IV단계는 앞의 유물 외에 후기북방계유물 및 새로운 형식의 청동도자(HIII) 등이 공반하는 단계로서 기원전 6세기 중반~5세기이다. 제V단계는 토착적인 성격의 유물과 戰國燕系遺物 및 일부지역에서 특정형식의 청동도자(EIII, F)가 공반하는 단계로서 기원전 4~3세기이다.

단계별 공간양상은 제I, II단계에는 요서지역에만 배타적으로 분포하다가, 제III단계로부터 요동과 길림 중부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요서 이외의 지역중 길림 중부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V단계에 이르기까지 청동도자의 제작이 제약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요동의 남부와 동부 및 길림 동부지역에서는 청동도자가 전혀 제작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요서지역을 청동도자 제작의 중심지역으로, 길림 중부지역을 부차적인 유행지역으로, 요동의 남부와 동부 및 길림 동부지역을 불모지역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길림 중부지역은 III식의 치병동도와 정공병동도가 집중적으로 유행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형식의 중심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중 III식의 치병동도는 여러 면을 고려하여 볼 때, 大凌河流域의 遼西 보다는 老哈河流域(寧城, 建平 北部)과 연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요령, 길림, 청동도자, 형식, 공반단계, 시공간성

* 한림대학교 강사

I. 머리말

북중국 일대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지역의 청동기문화는 동검의 복합 여부와 동검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無銅劍段階, 曲柄銅劍段階, 直柄銅劍段階로 대분 가능하다. 이러한 획분은 내몽고 중부로부터 하북성 북부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에서 전형적이지만, 요령지역 또한 이와 대비되는 일정한 단계성을 보인다. 즉, 요서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夏家店下層文化는 무동검단계, 魏營子式遺蹟群은 곡병동검단계, 琵琶形銅劍文化는 직병동검단계에 대비된다. 그런데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동검과는 달리 위의 세 단계 모두에 공반하는 청동이기류가 있다. 청동도자가 그러한 예에 속하는데, 북중국과 중국 내지 모두에서 무동검단계의 공반예가 확인되고 있다(李濟1949, 安金槐1992).

요령지역에서는 魏營子段階로부터 공반하기 시작하는데, 琵琶形銅劍段階에 이르러 그 제작이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일뿐, 시간과 지역에 따라 형식은 물론 기종 자체의 보급면에서 적지 않은 편차가 확인된다. 예를들어, 길림지역의 경우 독특한 형태의 치병동도와 정공병동도류가 특징적으로 유행하였다는 점에서 요령지역 전체와 지역적인 차별성을 보이고 있고, 요동지역의 경우 이른 시기(위영자단계)의 개별적인 출토예를 제외하고는 청동도자가 청동기시대 내내 유행하지 못하였으며, 요서지역의 경우 시간의 추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것이 유행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청동도자의 주요한 기능은 공구류이다. 따라서 청동도자의 형태는 물론 유행 여부를 통해 관련지역의 경제행위와 성격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간 내외학계에서 요령 등지의 청동도자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는데(秋山進午1968, 尹武炳1972, 李康承1979), 당시까지 발견 예가 많지 않았던 까닭에 본격적인 분석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瑜琮(1991)이 내몽고 동남부와 길림지역의 치병동도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진행한 바 있으나, 분류기준이 애매한데다 기준의 적용이 일관되어 있지 않아 충분치 못한 감이 있다. 더욱이 분석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전반적 양상을 밝히기 어려운 흠이 있다.

여기서는 청동도자에 대한 보다 상위의 분석을 행하기에 앞서, 우선 요령~길림지역의 청동도자를 유의미한 기준을 마련하여 몇 개의 형식으로 분류한 다음, 청동도자의 공반유물을 기술적인 혁신과 시대성을 강하게 띄고 있는 유물의 공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몇 개의 공반단계로 획기하고, 이어 각 공반단계의 시간범위를 밝혀 보기로 하겠다. 다음으로는 요령~길림지역을 지형지리와 유물복합의 차이를 근거로 하여 몇 개의 지역으로 획분한 후, 청동도자의 이들 지역에서의 시공간적인 양상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아울러 시공간적인 양상을 살펴 보는 가운데, 청동도자를 매개로 한 지역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II 형식분류

본장에서는 요령~길림지역의 청동도자를 유의미한 기준을 마련하여 분류하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 그간 관련학계에 제시된 분류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식학적인 면에서 관련지역의 청동도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기왕의 분류안에 대한 검토가 중국 내지와 북중국 일대의 표본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거시적인 면에서 요령~길림지역의 청동도자가 동북아시아지역의 상황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¹⁾, 북중국 등을 초점으로 한 분류안을 살펴 보는 것 또한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기왕의 분류안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江上波夫(1935), 李濟(1949), 陳蒙家(1954), 陳振中(1985)이 있다. 이중 江上波夫는 청동도자를 처음으로 형식분류하였다는 점에서 학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데, 주로 내몽고 중부를 중심으로 한 장성일대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구매품과 전세품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손잡이부의 단면상태를 제1기준으로 하여, 손잡이부의 단면이 납작편평한 것과 양측변에 돌대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대분한 뒤, 이를 다시 손잡이부의 장착방식, 손잡이 머리부의 형태, 손잡이부의 장식문양, 손잡이부와 날부위의 연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합 11개 형식으로 세분하였다.

江上波夫의 분류는 관련연구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분류상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속성들을 대부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데,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손잡이부의 단면상태가 청동도자를 대분류하는데에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분류기준상의 문제점은 江上波夫의 A형과 F형중 일부 표본(鹿首, 曲柄, 弧背凹刃)이 손잡이부의 단면상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속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청동도자를 형식분류하는데에 손잡이부의 단면이 아닌 다른 속성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李濟는 殷墟에서 출토된 표본만을 특화하여 분류하였는데, 그 역시 商代의 표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사적인 의의가 있다. 그는 江上波夫와는 달리 날부위의 형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殷墟의 청동도자를 弧背凹刃, 凹背弧刃, 直背弧刃, 橫S形의 4개형(A, B, C, D)으로 대분류한 뒤, 이를 다시 날부위의 세부적인 형태 차이에 따라 도합 40개식(A1, A2, B1, B2, C1, C2, D1, D2...)으로 세분하였다. 그의 분류는 기준의 적용이 일관되어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유물의 공반관계와 형태면을 고려하여 각 형식간의 변천관계를 살펴 보고

1) 이와 관련해서는 요령~길림지역의 지병동도와 수병동도 등이 내동고~하북성 일대의 것과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자 하였다는 점에서, 江上波夫 보다 한 단계 진전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李濟의 분류는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A형의 경우 도합 13개 형식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날끝부위의 미세한 변화까지를 모두 고려하고 있어, 과연 이러한 분류가 분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陳蒙家の 분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시된 것인데, 殷墟의 청동도자를 날부위의 형태를 제1기준으로 하여 전체 4개형으로, 손잡이 머리장식의 유무를 제2기준으로 하여 6개식으로, 손잡이 머리장식의 구체적인 형태 차이 등을 제3기준으로 하여 21개 아식으로 세분하였다. 따라서 陳蒙家の 분류는 李濟의 분류를 보완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분류안은 날부위를 제1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즉, 이들의 분류안에 의하면, 기원전 12~11세기 장성일대에서 시대성을 띄며 특징적으로 유행한 獸首銅刀와 기원전 6~5세기 북중국 일대의 環首銅刀가 날부위만을 기준으로 같은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안으로는 청동도자의 시공간성을 적절하게 드러낼 수 없다. 따라서 시공간성을 염두에 둔 분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陳振中은 청동도자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중 머리부를 포함한 손잡이부가 가장 유효한 분류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중국 내지와 북중국의 표본을 전체 11개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으로 기존 성과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기왕의 분류안중 陳振中의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손잡이부가 청동도자 전반의 유형적인 특징은 물론 그외의 면까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날부위만을 기준으로 형식을 분류할 경우(弧背凹刀, 凹背弧刀…), 날부위를 제외한 일체의 속성(着柄方式, 柄部形態, 系統性 等)이 배제되게 된다. 반면 손잡이부를 기준으로 형식을 분류할 경우(鈴首銅刀, 獸首銅刀, 齒柄銅刀, 曲柄銅刀, 直柄銅刀…)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청동도자의 적지 않은 속성을 드러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요령~길림지역의 청동도자를 손잡이부의 형태를 제1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기로 하겠다.

즉, 요령~길림지역의 청동도자를 손잡이부를 제1기준으로 하여, 손잡이부 아래에 鈕가 달려 있는 鈕柄銅刀(A형), 손잡이부가 현재의 食刀柄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 食刀柄銅刀(B형), 손잡이 끝에 匙形裝飾物이 달려 있는 匙柄銅刀(C형), 손잡이 끝에 짐승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는 獸柄銅刀(D형), 손잡이 아래에 치상돌기가 달려 있는 齒柄銅刀(E형), 손잡이부에 치상돌기 대신 홈이나 구멍이 뚫어져 있는 釘柄銅刀(F형), 손잡이부 끝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穿孔柄銅刀(G형), 손잡이 끝에 둥근고리가 달려 있는 環首銅刀(H형), 손잡이 끝에 동검걸이(鉤)가 장식되어 있는 鉤柄銅刀(I형), 손잡이 끝에 방울이 달려 있는 鈴首銅刀(J형)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런데 위의 도자류중 穿孔柄銅刀, 獸柄銅刀, 齒柄銅刀, 環首銅刀는 형태면에서 표본간의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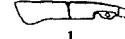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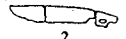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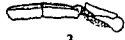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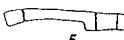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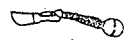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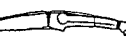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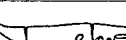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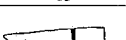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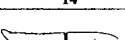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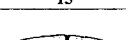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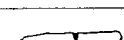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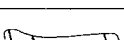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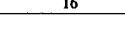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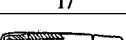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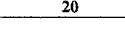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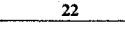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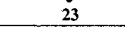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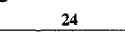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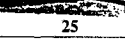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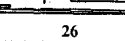
차가 심한 편이다. 따라서 적어도 위의 네 형에 대해서만은 이차적인 분류를 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穿孔柄銅刀는 날부위와 손잡이 모두가 세장한 十二臺營子類와 그렇지 않은 기타류로 구분 가능한데, 十二臺營子類가 전반적인 형태면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반면, 그외의 것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외 十二臺營子類가 夏家店上層文化 南山根期の 것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다른 류와 형식적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十二臺營子類를 GII식, 그외의 것을 GI식으로 세분하고자 한다.

獸柄銅刀는 손잡이부 끝의 동물장식이 전신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동물머리만으로 제한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할 때, 사슴이나 소의 머리만이 장식되어 있는 류의 것과 늑대나 토끼 등의 전신이 장식되어 있는 류의 것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중 전자는 魏營子段階에 鈴首銅刀, 青銅禮器 등과 공반관계를 이룬 채 특징적으로 유행한 것으로서, 十二臺營子段階에 유행한 후자와는 시간성을 달리한다. 이외 동물을 장식하는 방식이 모티프와 양식면에서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 또한 고려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자를 DI식(彎柳街, 水泉城子 M741…), 후자를 DII식(十二臺營子M1…)으로 세분하고자 한다.

齒柄銅刀는 손잡이부가 날부위와 구분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두 개의 표본집단으로 구분 가능한데, 손잡이부가 날부위와 단을 지어 구분되어 있는 류는 다시 치상돌기가 발달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표본집단으로 구분 가능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구분된 표본들이 치병동도의 변천관계는 물론 시공간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손잡이부가 구분되어 있으면서 치상돌기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류를 EI식(平頂山3期層…), 손잡이부가 구분되어 있으면서 치상돌기가 발달되어 있는 류를 EII식(和尚溝M17…), 손잡이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류를 EIII식(猴石山M18…)으로 세분하고자 한다.

環首銅刀 역시 環首部의 형태와 손잡이부의 연결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손잡이부와 날부위 사이에 欄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환수 외면에 돌기가 장식되어 있는 것, 손잡이부와 날부위가 밋밋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손잡이부 끝에 소형의 환수가 달려 있는 것, 도신 전반이 세장한 가운데 손잡이부가 날부위와 단을 지어 구분되어 있고 손잡이부 끝에 대형의 환수가 달려 있는 것의 세 개 표본집단으로 구분 가능하다. 여기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 표본집단들이 환수동도의 변천관계는 물론 시공간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각각의 것을 HII(楊河…), HIII(老建平…), HIII식(南洞溝…)으로 세분하고자 한다.

그러면 아래에 필자의 분류안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써 본 장에 대한 논급을 마치기로 하겠다.

| | | | | |
|----|---|---|---|--|
| A형 |  |  | | |
| B형 |  |  |  | |
| C형 |  |  | | |
| D형 | DI  |  | | |
| | DII  | | | |
| E형 | EI  | | | |
| | EII  |  | | |
| | EIII  |  | | |
| F형 |  |  |  |  |
| G형 | GI  |  | | |
| | GII  | | | |
| H형 | HI  | | | |
| | HII  | | | |
| | HIII  | | | |
| I형 |  | | | |
| J형 |  | | | |

〈삼도1〉 요령~길림지역 청동도자의 제형식

- * 1. 朝陽 十二臺營子M1, 2. 建平 大拉罕溝M851, 3. 建平 樂家營子M901, 4. 樺甸 西荒山屯M1, 5. 大連 樓上, 6. 建平 樂家營子M901, 7. 新賓 永陵 色家, 8. 建平 水泉城子M741, 9. 建平 二十家子, 10. 朝陽 十二臺營子M1, 11. 阜新 平頂山3期層, 12. 喀左 和尙溝DM17, 13. 朝陽 木頭溝M1, 14. 吉林 山頂大棺, 15. 吉林 泡子沿前山M3, 16. 吉林 土城子M2, 17. 吉林 猴石山T2, 18. 吉林 山頂大棺, 19. 雙陽 萬寶山, 20. 建平采7號, 21. 建平采6號, 22. 朝陽 十二臺營子M2, 23. 興城 楊河, 24. 建平采3號, 25. 凌源 三官甸子M1, M2, 26. 建平采5號, 27. 法庫 彎柳街.

Ⅲ. 공반단계와 편년

요령 등지의 청동도자 공반유물을 단계 구분하는데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유물 또는 유물요소로는 管鋤斧, 鋤啄戈, 青銅劍柄, 動物樣式, 有鋤式銅鏃, 두쪽 말재갈, 戰國燕系遺物 등을 들 수 있다. 즉, 管鋤斧와 鋤啄戈는 유물조합면에서 요령 등지에 비파형동검을 위시한 특징적인 청동기 유물군이 출현하기 이전 단계를²⁾, 青銅劍柄은 비파형동검단계내의 기술적인 혁신을³⁾, 後期北方系遺物(動物樣式, 三翼·三稜有鋤式銅鏃, 環首銅刀, 두쪽말재갈, 曲棒形帶鉤, 水禽形帶鉤, 凹口式銅鈴, 격창…)과 戰國燕系遺物은 이러한 유물조합의 유행시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각 단계 구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은 요령지역의 공반유물을 구분하는데에만 유효성을 띤다. 즉, 길림지역의 경우 요령지역의 상황과는 달리, 전국연계 유물요소와 일부의 북방계 유물요소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청동기유물이 그다지 유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두 지역을 다른 차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 요령지역 청동도자 공반유물을 위의 기준을 근거로 몇 개의 공반단계로 구분한 후, 이어 지역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길림지역의 유물이 요령지역의 공반단계중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 대비되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을 통해, 요령~길림지역 청동도자 공반단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면 요령지역의 공반단계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위의 기준을 통해서 볼 때, 요령지역의 청동도자 공반유물은 전체 네 단계로 획기된다. 즉, 제I단계는 비파형동검 관련 청동기유물군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령지역의 이른 시기의 無文土器(魏營子式土器, 高臺山式土器, 順山屯式土器)와 管鋤斧, 鋤啄戈 등의 청동기유물이, 제II단계는 청동제 검손잡이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파형동검 등의 관련 청동기유물군이, 제III단계는 청동제 검손잡이와 비파형동검 등의 관련 청동기유물군이, 제IV단계는 비파형동검과 중세형동검을 위시한 관련 청동기유물군과 後期北方系遺物群이 공반하는 단계이다.

그런데 길림지역의 공반유물중에는 철기를 위시한 戰國燕系遺物이 공반하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西荒山屯, 長蛇山…), 戰國燕系遺物은 사실상 초기철기시대로 획기된다는 점에

2) 鄭紹宗, 1984, 「中國北方青銅短劍的分期及形制研究」, 『文物』 2期; 林 濤, 1987, 「商文化青銅器與北方地區青銅器關係之再研究」, 『考古學文化論集』 1輯; 翟德芳, 1988, 「中國北方地區青銅短劍分群研究」, 『考古學報』 3期.
3) 秋山進午, 1968,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器文化の樣相」(上), 『考古學雜誌』 53-4; 林 濤, 1980, 「中國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 2期; 박진욱, 1987, 「비파형단검문화의 발원지와 창조자에 대하여」, 『비파형단검 문화에 관한 연구』(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서⁴⁾ 청동기시대의 범주에 속하는 後期北方系遺物과는 기술적인 기반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연계유물이 공반하는 길림지역의 유물을 요령~길림지역 공반단계중 제V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외 전국연계유물이 직접 공반하고 있지 않은 유적중, 大安 東山頭M1은 같은 층위의 생활유적에서 전국연계의 철제품이, 磐石 梨樹上屯은 기타 유물이 樺甸 西荒山屯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V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길림지역의 청동도자 유적중 猴石山과 土城子是 전국연계 유물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가운데 비파형동검, 비파형동모, 선형동부, 청동단추장식과 같은 청동기유물이 공반하고 있다. 아울러 토기류면에서는 V단계의 유적인 長蛇山과 연관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 유적을 요령지역 IV단계에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청동도자가 공반하고 있는 土城子 석관묘군의 윗문화층에 戰國燕系의 회색토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길림성 서부의 鎮賚 北崗子 또한 有釜式銅鏃이 공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의 유적들과 같은 단계내에 포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길림지역에서는 이외 청동도자가 공반하는 몇 유적들이 있는데, 이들 유적중 길림성 중부지역의 것들은 西團山型壺와 함께 老城—東山型壺가 공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인다. 그런데 이들 유적에 공반하는 西團山型壺는 형태적인 면에서 西團山文化 전기와 후기의 중간 단계에 위치해있고 있고⁵⁾, 老城—東山型壺는 西團山文化 전기유적(星星哨) 출토의 것과 연관되는 속성을 보인다⁶⁾. 이러한 점과 함께 山頂大棺에 星星哨段階에는 조합하지 않는 靑銅鳴鏞 등의 청동기유물이 공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雙陽 萬寶山과 吉林 山頂大棺 등을 猴石山(제IV단계) 보다 한 단계 앞선 제III단계의 유적으로 볼 수 있다⁷⁾.

이상으로 요령~길림지역의 청동도자 유적을 유의미한 기준에 따라 도합 다섯 단계로 획하여 보았다. 그러면 이하 각 공반단계의 시간범위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요령~길림지역 청동도자의 공반단계중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제V단계이다. V단계는 戰國燕系 遺物의 공반수위를 기준으로 할 때, 철제품을 위시한 전국연계 유물이 적극 공반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개의 유적집단으로 세분 가능하다. 전자로는 樺甸 西荒山屯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초기철기시대 길림지역에서 지역성을 띄며 특징적으로 유행

4) 李南珪(1999)는 중국 내지에서 철기화가 광역성을 띄며 본격화되는 것을 漢代로 보았는데, 이러한 양상은 戰國燕을 대표하는 유적인 唐山 賈各庄M18, 易縣 燕下都M31, 三河 雙村M1, 通縣 中趙甫墓, 三河 大唐廻M1등에 철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따라서 이 시기를 본격적인 철기시대로 대비된 개념으로서 초기철기시대로 획기할 수 있다.

5) 朱永剛, 1991, 「西團山文化墓葬分期研究」, 『北方文物』 3期, 10쪽.

6) 陳 雍, 1993, 「西團山文化陶器的類型學與年代學研究」, 『青果集』 1(吉林大學考古學系), 294~307쪽.

7) 오강원, 1999, 「서단산문화 석관묘유적의 연대편년」, 『先史와 古代』 13, 226~231쪽.

한 청동기(鳥形柄式劍)는 물론 철기(鑊, 자귀, 낫, 손칼)가 적극 공반하고 있다. 후자로는 遼源 高古村과 九台 石砬山 등을 들 수 있는데, 토기류를 위시한 일부 유물에서 단계성이 확인될 뿐, 전국연계 유물의 공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공반상의 차이가 시간적인 차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V단계를 V-1기(高古村類)와 V-2기(西荒山屯類)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V-1기와 같은 단계성을 보이는 유적의 경우 요령~길림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반면, V-2기의 유물유적의 경우 요령지역중에서도 요동의 산간지역과 길림지역에서만 확인된다. 이러한 점 V-2기의 시간적 위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항이라 하겠는데, 이와 같은 양상이 빚어지게 된 원인은 戰國燕의 遼寧 進出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⁸⁾. 여기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V단계를 기원전 4~3세기로 보되, V-1기를 기원전 4세기, V-2기를 기원전 3세기로 보고자 한다.

제V단계의 시간범위가 기원전 4~3세기로 편년된만큼 이보다 한 단계 앞선 IV단계는 기원전 4세기 이전에 위치지워지게 된다. IV단계의 구체적인 시간범위는 後期北方系遺物群의 시간성과 공반양상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우선 水禽形帶鉤는 몸체와 고리부의 장식상태와 휘어진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전형의 것과 그로부터 분화된 파생형으로 대분되고 있는데, IV단계의 것은 이중에서도 가장 고식에 속하는 전형류에 속한다. 아울러 수금형대구 전형류의 유행시기는 기원전 6~기원후 3세기대라고 한다⁹⁾. 이외 曲棒形帶鉤는 水禽形帶鉤에서 파생된 형식으로, 동형식의 帶鉤가 처음으로 출현한 시기는 기원전 5세기 중반이다¹⁰⁾.

두쪽 말재같은 안측과 바깥측 고리가 모두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바깥측 고리가 안측 고리에 비해 두 배 가량 큰 특징을 보이는데, 중국 내지에서 이와 같은 류가 출현하는 것은 洛陽 中州路 I期(M2415)부터이다¹¹⁾. 그런데 中州路 I期の 것은 고리부의 형태가 원형이 아닌 환형이라는 점 및 內外環의 크기가 유사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IV단계의 것과는 동형 내에서의 형식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IV단계의 것과 완전히 동일한 형식의 것이 中州路 II期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¹²⁾, 동형식의 두쪽 말재같이 기원전 6~5세기대에 해당하는 것임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有鑿式銅鏃은 그 출현시기가 꽤 늦은 편인데¹³⁾, 하북성 북부지역에서의 공반 예를 감안할

8) 剛內三眞, 1982, 「朝鮮における銅劍の始源と終焉」, 『考古學論考』, 824쪽; 尹武炳, 1972, 「韓國 青銅遺物の研究」, 『白山學報』 12, 131쪽.

9) 王仁湘, 1985, 「帶鉤概論」, 『考古學報』 3期, 301쪽.

10) 王仁湘, 1985, 「위의 글」(주 7), 279~284쪽.

11)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洛陽中州路(西工段)』(科學出版社), 圖版47-1.

12) 中州路M115:48과 M2717:204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위의 보고서, 圖版56-2, 68-2.

13) 林己奈夫, 1972, 『中國殷周時代の武器』(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353쪽.

때, 그 출현기를 기원전 6~5세기대로 볼 수 있다¹⁴⁾. 이외 三官甸子 石槨墓 등에 공반하고 있는 황금제의 臥虎飾과 臥鹿飾의 경우, 기원전 5세기대 장성일대에서 특징적으로 유행한 스키타이계 동물양식과(鄭紹宗1991)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또한 南洞溝의 銅簋는 唐山 賈各庄M18 출토의 것과 대비되고 있는데¹⁵⁾, 동유적은 유물조합을 기준으로, 기원전 4세기대로 편년되고 있는 하북성의 易縣 燕下都M31(河北省1965)과 三河 大唐廻M1·雙村M1(廊房文管所1987) 보다 한 시기 가량 앞선 것으로 배열되고 있다¹⁶⁾.

이와 같이 IV단계에 요령지역의 관련유적에 폭 넓게 공반하고 있는 후기북방계유물군 모두 기원전 6~5세기대의 시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IV단계에 공반하는 북방계유물군은 이른 형식과 늦은 형식의 유물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南洞溝에 다소 이른 시간성을 보이는 청동격창과 다소 늦은 시간성을 보이는 銅簋가 공반하고 있는 것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과 함께 비파형동검, EII식 청동도자와 함께 삼익유공식동촉이 공반하고 있는 鄭家窪子M6512가 기원전 6세기 중반~후반으로 편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¹⁷⁾, IV단계의 시간범위를 기원전 6세기 중반~5세기로 보고자 한다.

II단계의 시간범위는 單鈕無文鏡(大拉罕溝M851), 單鈕鏡形飾(大拉罕溝M851, 水泉城子M7801), 長型銅鈴(樂家營子M901) 등과 같은 하가점삼층문화 유물의 공반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이들 유물은 夏家店上層文化중 南山根段階에 특징적으로 유행한 전형유물들이다. 따라서 II단계가 시간적인 면에서 南山根類와 병렬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南山根M101, M102는 그 하한이 기원전 8세기대 중반을 넘지 않는다¹⁸⁾. 여기서는 이러한 점과 함께 일부 표본의 연대가 十二臺營子M1 보다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II단계의 시간범위를 기원전 9~8세기 중반으로 잡고자 한다.

II단계와 IV단계의 시간범위가 위와 같이 밝혀졌으므로, III단계는 자연 중간시기에 위치하지 않게 된다. 아쉬운 것은 III단계의 공반유물만으로는 시간적 위치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朝陽 木頭溝M1과 같은 형태의 청동도자가 寧城 孫家溝M7371에 北票 何家溝M7771과 같은 형식적 특징을 보이는 청동제 검손잡이와 함께 공반하고 있다든지, 農安 八里營子의 유물조합이 漢書1期文化 후기단계 보다 이른 조합상을 보이고 있다든지 하는 점에서 대체적인 시간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III단계의 시간범위를 기원전 8세기 후반~6세기 전반으로 보고자 한다.

14) 吳江原, 2002, 「鄭家窪子型壺의 型式變遷과 地域의 分布樣相」, 『科技考古研究』 8, 18~19쪽.

15) 遼寧省博物館·朝陽地區博物館, 1977, 「遼寧喀左南洞溝石槨墓」, 『考古』 6期, 375쪽.

16) 賀 勇, 1989, 「試論燕國墓葬陶器分期」, 『考古』 7期, 642~648쪽.

17) 吳江原, 2002, 「앞의 글」(주 12), 18~19쪽.

18) 靳楓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 『考古學報』 4期, 392쪽; 吳江原, 2001, 「夏家店上層文化 主要遺蹟의 年代編年」, 『清溪史學』 15, 13쪽.

제 I 단계는 阜新 平頂山3期層의 청동도자가 魏營子式土器와 공반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시기로 볼 수 있다. 魏營子式遺蹟群은 일반적으로 청동예기의 형식조합이 商末周初에 위치지워진다는지¹⁹⁾, 魏營子 木槨墓의 청동기유물(갑옷장식, 단추장식, 鑿鈴)이 昌平 白浮村 목곽묘 출토의 것과 대비된다든지²⁰⁾ 하는 점을 근거로 기원전 12~11세기로 편년되고 있다²¹⁾. 여기서는 이러한 점과 함께 彰武 平安堡3期層중 청동도자를 출토한 유구가 층위관계와 토기를 근거로 高臺山文化중 말기로 획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²²⁾, II단계의 시간범위를 기원전 12~10세기로 다소 느슨하게 잡고자 한다.

정리하면, 요령~길림지역의 청동도자 공반유물은 기술적 혁신과 시대성을 강하게 띄고 있는 유물의 공반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I~V단계의 전체 다섯 단계로 획기된다. 이중 제I단계는 魏營子(大凌河上流域)와 高臺山文化(柳河流域)의 유물이, 제V단계는 戰國燕系遺物(遼寧~吉林地域)이 공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과형동검을 위시한 관련 청동기유물군이 유행한 II~IV단계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 각 단계의 시간범위는 제I단계는 기원전 12~10세기, 제II단계는 기원전 9~8세기 중반, 제III단계는 기원전 8세기 후반~6세기 전반, 제IV단계는 기원전 6세기 중반~5세기, 제V단계는 기원전 4~3세기이다.

〈표1〉 청동도자 제형식의 유행시기

| 단 계 형 식 | I 단계 | II 단계 | III 단계 | IV 단계 | V 단계 |
|------------|------|-------|--------|-------|------|
| A | | | | | |
| B | | | | | |
| C | | | | | |
| D | DI | | | | |
| | DII | | | | |
| E | EI | | | | |
| | EII | | | | |
| | EIII | | | | |
| F | | | | | |
| G | GI | | | | |
| | GII | | | | |
| H | HI | | | | |
| | HII | | | | |
| | HIII | | | | |
| I | | | | | |
| J | | | | | |

19) 李亨求, 1991, 「大凌河流域의 殷末周初 青銅器文化와 箕子 및 箕子朝鮮」, 『韓國上古史學報』 5, 32쪽.

20) 郭大順, 1987, 「試論魏營子類型」, 『考古學文化論集』 1, 81쪽.

21) 郭大順, 1987, 「위의 글」(주 18), 88쪽.

2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外, 1992, 「遼寧彰武平安堡遺址」, 『考古學報』 4期, 470쪽.

<표2-1> 청동도자 제I단계의 유물유적

| 지역 | 번호 | 형식 / 유물 유적명 | 형식 | 출토 유구 | 공 반 유 물 | | | 문헌 |
|----|----|----------------|----|----------|----------------|-----|--|--------------------|
| | | | | | 청 동 기 | 철 기 | 기 타 | |
| 綾中 | 1 | 前衛① | HI | 매납 | 鎚啄戈2, 管鎚斧1, | - | - | 郭大順1993 |
| | 2 | 前衛② | HI | | 鉞形斧1, 도끼1 | | | |
| 興城 | 3 | 楊河① | HI | 매납 | 鎚啄戈2, 鉞1, 勾形器1 | - | - | 錦州市1978 |
| | 4 | 楊河② | HI | | | | | |
| | 5 | 楊河③ | HI | | | | | |
| 建平 | 6 | 二十家子 | DI | 포함층 | - | - | - | 建平縣1983 |
| 阜新 | 7 | 平頂山 3期層 | EI | 쟁구덩이 | - | - | 鬲, 甗, 盤, 罐, 盆, 甑, 鉢, 釜, 壺, 甗, 鉢, 釜, 壺, 高柄豆, 돌도끼, 돌끌, 환상석기, 돌가락바퀴, 돌패식, 돌낫, 돌공, 갈들, 뼈송곳, 뼈비녀, 뼈호미, 뼈화살촉, 뼈패식, 흙가락바퀴, 흙대롱구슬... | 遼寧省1992 |
| 彰武 | 8 | 平安堡 3期層 | EI | 쟁구덩이 | - | - | 뼈송곳1 | 遼寧省1992 |
| 法庫 | 9 | 彎柳街① | DI | 포함층 | 管鎚斧, 板狀斧... | - | 鬲, 鼎, 甗, 豎環 耳壺, 釜, 碗, 罐, 甗, 돌도끼, 돌가락바퀴... | 鐵嶺市1990 曹桂林1988 |
| | 10 | 彎柳街② | G | | | | | |
| | 11 | 彎柳街③ | G | | | | | |
| | 12 | 彎柳街④ | J | | | | | |
| 撫順 | 13 | 望花 | HI | 포함층 | - | - | 鼎, 甗, 甑, 罐, 壺, 盆, 碗, 흙가락바퀴, 흙그물추, 석도, 환상석기 | 撫順市1983 |

<표2-2> 청동도자 제II단계의 유물유적

| 지역 | 번호 | 형식 / 유물 유적명 | 형식 | 출토 유구 | 공 반 유 물 | | | 문헌 |
|----|----|----------------|-----|----------|--|-----|------------------------|---------|
| | | | | | 청 동 기 | 철 기 | 기 타 | |
| 朝陽 | 14 | 十二臺營子 M1:① | A | 석곽묘 | 비파형동검2, 검병두식2, 선형동부1, 끌1, 송곳3, 양익유경식족2, 人面形 牌飾6, 獸面形牌飾3, 늑시비늘3, 三穿式재갈 멈치6, 단추장식6, 절약12, 管狀飾59, Y形飾1, 다뉴경2 | - | 숫돌1, 돌그물 추1, 흙가락바퀴1 | 朱 貴1960 |
| | 15 | 十二臺營子 M1:② | DII | | | | | |

| 지역 | 번호 | 형식 / 유물 유적명 | 형식 | 출토 유구 | 공 반 유 물 | | | 문헌 |
|----|-------|----------------|------|----------|---|-----|-----------------------------------|----------|
| | | | | | 청 동 기 | 철 기 | 기 타 | |
| 朝陽 | 16 | 十二臺營子 M2 | G | 석곽묘 | 비파형동검?, 검병두식1, 단뉴경1 | - | ? | |
| 建平 | 17 | 大拉罕溝 M851 | A | 석곽묘 | 비파형동검2, 검병두식1, 선형동부1, 단뉴경1, 단뉴무문경2, 단뉴경형식1 | - | 뼈삼천식재갈머치2, 뼈이천식재갈머치1, 유공석부1 | 李殿福 1991 |
| | 18 | 樂家營子 M901:① | B | 목관묘 | 비파형동검1, 검병두식1, 선형동부1, 錘斧1, | - | 뼈유경식촉4, 목걸이들 | " |
| | 19 | 樂家營子 M901:② | C | | 새김칼1, 長型銅鈴2, 鴨形銅飾44, 황금팔지1 | | 뼈유경식촉4, 구슬42 | " |
| | 20 | 水泉M8 | EIII | 목관묘 | 鎊柄式銅劍1, 鈞刃狀銅斧1, 끌1, 송곳1, 양익유경식촉1, 단추장식16, 연주형 동식24, 대롱모양장식3, 燕尾形단추장식1, 단뉴경형식1 | - | 뼈유경식촉8, 뼈방격문패식1 | 遼寧省 1986 |
| | 21 | 石砬山 M741 | DI | 석곽묘 | 鎊柄式銅劍1, 삼익유경식촉8, 투구1 | - | 뼈화살촉20 | 建平縣 1983 |
| | 22 | 水泉城子 M7701 | EIII | 목관묘 | 鎊柄式銅劍1, 양익 유경식촉1, 鈞刃 狀銅斧1, 끌1, 송곳1, 단뉴경형식1, 단추장식18, 雙尾 形銅飾1, 연주형 동식26 | - | 뼈화살촉9, 뼈새기개1, 刻文骨片, 石鈹1 | " |
| | 23 | 水泉城子 M7801 | EIII | 무덤 | 鎊柄式銅劍1, 단뉴경형식1 | - | - | " |
| | 24 | 房身 | I | 채 집 | - | - | - | " |
| | 25 | 建平采1號 | DII | 채 집 | - | - | - | " |
| | 26 | 建平采5號 | I | 채 집 | - | - | - | " |
| 27 | 建平采6號 | GI | 채 집 | - | - | - | " | |
| 28 | 建平采7號 | GI | 채 집 | - | - | - | " | |
| 喀左 | 29 | 和尚溝 DM12 | EII | 목곽묘 | - | - | 소뼈 | 遼寧省 1989 |
| | 30 | 和尚溝 DM15 | EII | 목곽묘 | - | - | 鉢3, 돌도끼1, 뼈유경식촉, 소뼈 | " |
| | 31 | 和尚溝 DM17 | EII | 목곽묘 | 비파형동검1, 단추장식1 | - | 뼈유경식촉5, 돌도끼1 | " |
| | 32 | 和尚溝 BM22 | EII | 토광묘 | - | - | 鉢3, 돌도끼1 | " |

〈표2-3〉 청동도자 제Ⅲ단계의 유물유적

| 지역 | 번호 | 형식 / 유물 유적명 | 형식 | 출토 유구 | 공 반 유 물 | | | 문헌 |
|----|----|----------------|------|----------|--------------------------|-----|--|---------|
| | | | | | 청 동 기 | 철 기 | 기 타 | |
| 朝陽 | 33 | 木頭溝M1 | EII | 석관묘 | 비파형동검1, 검병두1, 도끼1, 곁1 | - | 검병두식1 | 建平縣1983 |
| 新賓 | 34 | 永陵色家 | C | 석관묘 | - | - | 돌도끼1, 돌자귀1, 세장형관상석기1, 유경식석촉1 | 張 波1984 |
| 雙陽 | 35 | 萬寶山 | F | 석관묘 | - | - | 老城型壺2, 板耳罐1, 板耳碗1, 板耳鉢1, 돌도끼1 | 許彥文1982 |
| 吉林 | 36 | 山頂大棺① | EIII | 석 묘 | 선형동부1, 鳴鏑1, 단추장식13 | - | 老城型壺1, 異形壺1, 흙가락바퀴2, 석도1, 마노구슬1, 옥대롱 장식6, 돌대롱장식22 | 吉林省1985 |
| | 37 | 山頂大棺② | F | | | | | |
| | 38 | 狼頭山M101 | EIII | 석관묘 | 선형동부1 | - | 호1, 발1, 돌도끼1, 돌호미1, 돌자귀1, 돌끌1, 유경식석촉1 | 吉林市1984 |
| 農安 | 39 | 八里營子 | F | 석관묘 | - | - | 壺, 罐, 碗, 玉環, 八字形玉器, 돌도끼, 조개장식 | 吳鐵軍1997 |

〈표2-4〉 청동도자 제IV단계의 유물유적

| 지역 | 번호 | 형식 / 유물 유적명 | 형식 | 출토 유구 | 공 반 유 물 | | | 문헌 |
|----|----|----------------|------|----------|---|-----|---|---------|
| | | | | | 청 동 기 | 철 기 | 기 타 | |
| 凌源 | 40 | 三官甸 M1,2:① | HIII | 무덤 | 비파형동검4, 검병두식4, 양익유경식촉2, 삼릉 유공식촉4, 꺾창1, 환수동도2, 도끼2, 곁2, 蛙形飾2, 蛇舍 蛙形飾2, 臥虎舍兎 飾2, 黃金臥虎飾2, 黃金鹿飾2, 황금 대롱1, 단추장식4, 蛙形節約12, 虎形 節約7, 두쪽말재갈2, 말재갈범치2, 鼎1 | - | 마노대롱구슬2, 터어키석 목걸이용 돌구슬18, 長頸壺1, 送風管1, 斧范2 | 遼寧省1985 |
| | 41 | 三官甸 M1,2:② | HIII | | | | | |
| | 42 | 五道河子 M7 | HIII | 토광묘 | 人形飾20, 鍾形飾16, 穿孔垂飾27, 연주형식19, 단추장식, 고리, 기타장식16 | - | 터어키석목걸 이구슬29, 마노구슬1 | 遼寧省1989 |

| 지역 | 번호 | 형식 / 유물 유적명 | 형식 | 출토 유구 | 공 반 유 물 | | | 문헌 |
|----|----|----------------|------|----------|---|-----|---|---------|
| | | | | | 청 동 기 | 철 기 | 기 타 | |
| | 43 | 五道河子 M8 | HIII | 토광묘 | 중세형동검1,扁莖劍1, 세장형동부1,끌1, 껴창1,삼릉형촉1, 鷄形牌飾1,馬形牌飾 | - | - | " |
| | 44 | 五道河子 M9 | HIII | 토광묘 | 盤首柄銅劍1,삼익 형촉1,鹿形帶鉤2, 馬形牌飾,三角形 垂飾10 | - | - | " |
| 喀左 | 45 | 南洞溝 | HIII | 석곽묘 | 비파형동검1,검병1, 두쪽재갈2,말얼굴 장식2,水禽形帶鉤1, 껴창1,대릉·절약8, 수레굴대2,기타장식2,簋1 | - | - | 遼寧省1977 |
| 沈陽 | 46 | 鄭家窪子 M6512 | EII | 목곽묘 | 비파형동검3,선형동부1, 끌1,삼익유공식촉71, 양익유경식촉98, 두쪽재갈2,기타재갈2, 재갈멈치8,칼집장식3, 도끼집장식1,손칼집 장식1,송곳1,단추장식 180,기타장식4,대릉· 절약49,기타미구 장식245,경형식6, 다뉴조문경1 | - | 정가와자형호3, 목걸이돌구슬33, 목걸이돌장식1, 머리장식구슬46, 검집장식용터어 키석1,뼈재갈멈치8, 뼈집1,뼈비녀2, 검병두식3, 소다리뼈 | 沈陽博1975 |
| | 47 | 鄭家窪子 1地點 | B | 무덤? | 비파형동검1,선형 동부1,끌2,절약10, 단뉴원형식3,쌍뉴 원형식5,다공뉴원 형식1,쌍월형식4 | - | ? | 沈陽市1964 |
| 大連 | 48 | 樓上 M1~M3 | B | 적석총 | 비파형동검7,세장형동 부2,끌2,송곳1,방울1, 방패형장식1,반원 형장식1,장방형식2, 方形飾3,圓形飾1, 扁平形牌飾1,고리3, 활시위덮개1,虎形銅飾1, 단추장식50,구슬3, 球形飾1,기타장식1 | - | 강상형토기1, 돌단추장식1, 마노구슬1, 마노장식1, 돌대롱구슬4, 돌공1,검병두식2 | 旅順博1960 |
| 吉林 | 49 | 猴石山M1 | EIII | 석관묘 | - | - | 麻布囊 | 吉林地1980 |
| | 50 | 猴石山M12 | EIII | 석관묘 | - | - | 돌도끼1,돌자귀1, 흙그물추9 | 吉林省1993 |
| | 51 | 猴石山M18 | EIII | 석관묘 | 비파형동검1,단추장식5, 누공형식1,귀걸이장식5 | - | 壺1,鉢1,돌도끼2, 돌자귀1, 돌대롱장식53, 돌그물추15 | " |

| 지역 | 번호 | 형식 / 유물 유적명 | 형식 | 출토 유구 | 공 반 유 물 | | | 문헌 |
|----|----|----------------|------|----------|------------------------------------|-----|---|----------|
| | | | | | 청 동 기 | 철 기 | 기 타 | |
| | 52 | 猴石山M19 | EIII | 석관묘 | 비파형동모1, 단뉴무문경12, 선형동부1 | - | 甗1, 罐1, 돌도끼3, 돌호미1, 괄삭 기1, 돌대롱장식7 | " |
| | 53 | 猴石山M22 | EIII | 석관묘 | - | - | 甗1, 碗1, 돌도끼1, 돌자귀1 | " |
| | 54 | 猴石山M30 | EIII | 석관묘 | - | - | 터어키석대롱 장식1, 돌대롱 장식35 | " |
| | 55 | 猴石山M33 | EIII | 석관묘 | 단뉴무문경1 | - | 甗1, 鼎1, 돌도끼1, 돌자귀1, 터어키 석대롱장식1, 돌대롱장식12 | " |
| | 56 | 猴石山M43 | EIII | 석관묘 | 선형동부1, 비파형 동모1, 勾形飾2, 단뉴무문경1 | - | 甗1, 碗1, 돌도끼1, 옥귀걸이장식1, 터어키석장식1, 돌대롱장식45 | " |
| | 57 | 猴石山M47 | EIII | 석관묘 | - | - | 호1, 鬲그물추13, 돌도끼1, 돌뚜르개1 | " |
| | 58 | 猴石山M53 | EIII | 석관묘 | 선형동부1 | - | 甗1, 마노대롱 장식2, 돌대롱 장식40 | " |
| | 59 | 猴石山M60 | EIII | 석관묘 | - | - | 甗1, 盆1, 돌도끼1, 돌자귀1, 돌화 살촉11, 터어키 석대롱장식1, 돌대롱장식104, 옥귀걸이장식1 | " |
| | 60 | 猴石山M62 | EIII | 석관묘 | - | - | 돌도끼1, 숫돌1, 터어키석대롱 장식1, 돌대롱 장식31, 마노 대롱장식1 | " |
| | 61 | 猴石山M62 | EIII | 석관묘 | | | | " |
| | 62 | 猴石山T2 | F | 포함층 | - | - | 鬲, 碗, 鬲가락 바퀴, 돌자귀, 석도, 돌도끼, 돌대롱장식, 돌귀걸이장식, 숫돌, 삼각형석촉 | " |
| | 63 | 猴石山T2 | F | 젓구멍 | - | - | 사슴뿔, 벽옥형장식 | " |
| | 64 | 土城子M2 | F | 석관묘 | - | - | 돌도끼2, 뼈손칼손잡이1 | 康家興 1955 |

| 지역 | 번호 | 형식 / 유물 유적명 | 형식 | 출토 유구 | 공 반 유 물 | | | 문헌 |
|----|----|----------------|------|----------|--------------------------------|-----|---|---------|
| | | | | | 청 동 기 | 철 기 | 기 타 | |
| | 65 | 土城子M10 | F | 석관묘 | 연주상동식14 | - | 돌대롱구슬, 마노대롱구슬2, 비취귀걸이장식1 | 吉林省1957 |
| 鎮賚 | 66 | 北崗子M5:① | EIII | 토광묘 | 양익유공식촉2, 송곳1, 絲環1, 단추장식37 | - | 호2, 격2, 뼈송곳3, 뼈화살촉6, 옥드 림장식2, 자작 나무껍질용기1, 麻織品 | 郭 珉1993 |
| | 67 | "② | EIII | | | | | |
| | 68 | "③ | EIII | | | | | |
| | 69 | 北崗子採集 | EIII | 무덤 | 삼릉유공식동촉, 鏤孔銅鈴, 단추장식, 고리, 장식 | | 壺, 鉢, 鬲 | " |

〈표2-5〉 청동도자 제V단계의 유물유적

| 지역 | 번호 | 형식 / 유물 유적명 | 형식 | 출토 유구 | 공 반 유 물 | | | 문헌 |
|----|----|----------------|------|----------|--|-----|---|---------|
| | | | | | 청 동 기 | 철 기 | 기 타 | |
| 遼源 | 70 | 高古村M1 | EIII | 대석개묘 | 귀걸이6 | - | 검병두식1, 솥들1, 돌대롱장식152 | 吉林省1993 |
| 樺甸 | 71 | 西荒山屯 M1:① | B | 대석 개묘 | 중세형동검1, 鳥形柄式 劍2, 양익형촉1, 손칼3, 단추장식2, 청동덩어리1 | 손칼1 | 罐形杯4, 돌공2, 연마기1, 돌가락 바퀴1, 돌대롱구슬 57, 마노대롱구슬2, 터어키석귀걸이1 | 吉林省1982 |
| | 72 | 西荒山屯 M1:② | B | | | | | |
| | 73 | 西荒山屯 M1:③ | B | | | | | |
| | 74 | 西荒山屯 M4 | B | " | 손칼1, 검병두식1 | 낫1 | 罐形杯5, 대접1, 돌도끼1, 석도1, 솥들4, 흙가락 바퀴1, 돌대롱 구슬6, 터어키석 귀걸이1, 들장식4 | " |
| 磐石 | 75 | 梨樹上屯 | F | 대석개묘 | - | - | 壺1, 罐1, 杯1, 흙가락바퀴1, 검병두식1, 솥들3, 돌드 림장식2 | 張永平1993 |
| 九台 | 76 | 石砬山YS:29 | EIII | 포함층 | - | - | 壺, 罐, 碗, 杯, | 吉林省1991 |
| | 77 | 石砬山YS:30 | EIII | | | | 甗, 陶勺, 흙가 | |
| | 78 | 石砬山YS:31 | F | | | | 락바퀴, 석도, 솥들 | |

| 지역 | 번호 | 형식 / 유물 유적명 | 형식 | 출토 유구 | 공 반 유 물 | | | 문헌 |
|----|----|----------------|------|----------|---------|-----|--|---------|
| | | | | | 청 동 기 | 철 기 | 기 타 | |
| 吉林 | 79 | 泡子沿M3 | EIII | 석관묘 | - | - | 돌도끼1 | 吉林市1985 |
| | 80 | 長蛇山F3:① | F | 주거지 | - | - | 鼎1,罐2,甑1, 碗5,흙가락 바퀴3,흙그물 주15,돌도끼8, 돌자귀1,돌끌4, 석도4,돌화살촉34,숫돌1, 연마기8,환상 석기1,갈돌대1, 기타석기6 | 吉林省1980 |
| | 81 | 長蛇山F3:② | F | | | | | |
| | 82 | 長蛇山F6 | F | 주거지 | 선형동부1 | - | 甑1,碗2,흙가 락바퀴1,흙그 물주1,돌도끼7, 돌자귀1,석도2, 돌화살촉1,돌그 물추6,옥석장식 | " |
| 大安 | 83 | 東山頭M1 | F | 토광묘 | 단추장식,絲環 | - | 옥벽,마노구슬, 돌대롱구슬, 뼈대롱구슬, 뼈송곳,뼈화 살촉,뼈장식, 壺,罐,甬 | 匡瑜1961 |

* 이외 (84)建平 老建平, (85)安家樓, (86)建平 采3號(建平縣1983)에서 공반단체를 확정하기 애매한 형식의 청동도자가, (87)朝陽 波羅赤(靳楓毅1988), (88)沈陽 新樂(沈陽市1978), (89)建平 炮手營子M881(李殿福1991), (90)錦西 烏金塘M1~M3(錦州市1960), (91)撫順 施家東山(撫順市1983), (92)大連 樓上 積石塚, (93)九台 關馬山M1(吉林省1991) 등에서 형식이 불분명한 청동도자가 각각 출토 또는 채집되었다.

IV. 시공간적 양상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요령~길림지역 청동도자의 시공간적인 양상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하는데, 논의에 앞서 관련지역을 유물복합과 자연지형의 차이에 따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눈 후, 단계별 지역간 양상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다.

우선 요령지역의 경우, 遼河를 기준으로 그 이동(遼東)과 이서(遼西)의 두 지역으로 대분 가능하다. 그런데 요령지역중 柳河流域(新民,彰武,康平,法庫)의 경우, 지형지리는 물론 유물복합면에서도 요동과 요서 두 지역 모두에 연결되면서 또 어느 한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일각에서는 요동과 요서의 분기점을 醫巫閭山으로 본

다든지²³⁾, 柳河流域을 요동과 요서의 중간지대로 보고자 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²⁴⁾.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는 하나, 柳河流域이 高臺山文化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요서지역에 보다 가깝다는 인식하에 일단 이 지역을 요서로 편입시키고자 한다.

요동지역은 수계와 산맥을 기준으로 遼東 北部, 遼東 南部, 遼東 南端, 遼東 東部地域의 도합 네 개 지역으로 세분 가능하다. 즉, 요동 북부는 遼吉 分水嶺을 기점으로 길림 남부지역과, 老禿頂山을 기점으로 요동 동부지역과, 千山을 기점으로 요동 남부지역과 각각 지형적인 차이를 보인다. 요동 남부는 普蘭店灣을 기점으로 요동 남단지역과, 帽盔山을 기점으로 요동 동부지역과 각각 지역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들 지역간의 지리적인 차이는 위의 지역들이 수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는데, 요동 북부지역은 서류하는 太子河~寇河流域, 요동 남부지역은 남류하는 碧流河~大洋河流域, 요동 동부지역은 동류 또는 남류하는 渾江~靚河流域에 속한다.

요서지역 또한 요서 북부, 요서 서부, 요서 남부지역으로 세분 가능하다²⁵⁾. 그런데 요서지역의 경우 요동지역과는 달리, 세 지역이 大凌河 양안의 하안지대를 기본루트로 하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단, 요동 남부지역의 경우, 松嶺山脈을 경계로 다른 지역과 지리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외 建平 北部地域(老哈河流域)은 현재 요령성에 편입되어 있을 따름이지, 努魯兒虎山을 기점으로 기타의 요서지역과 현격한 지리적인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는 하나, 건평 북부를 제외한 기타 지역간의 지리적 차이가 현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들 모두를 요서지역으로 묶고자 한다.

길림지역은 吉林 中部, 吉林 西部, 吉林 東部(延邊), 吉林 南部地域으로 세분 가능하다. 즉, 길림 남부지역은 遼吉 分水嶺을 기점으로 요동 북부와, 雙鴨子大山을 기점으로 길림 중부와, 龍崗山脈을 기점으로 길림 동부지역과 지리적인 차이를 보인다. 길림 중부지역은 東北平原과 大黑山山脈의 교계처를 기점으로 길림 서부지역과, 威虎嶺을 기점으로 길림 동부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길림 서부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상 길림성에 편입되어 있을 뿐, 사실상 第2松花江~東遼河流域과는 지형지리는 물론 수계를 전혀 달리하는 지역으로, 嫩江 본류를 중심으로 黑龍江省 西南部(齊齊哈爾, 泰來, 大慶)와 같은 구역을 형성하고 있다²⁶⁾.

이상으로 산맥과 수계를 중심으로 요령~길림지역을 몇 개의 지역으로 세분하여 보았는데,

23) 郭大順, 1993, 「遼河流域 “北方式青銅器” 的發現與研究」, 『內蒙古文物考古』 1·2期, 27쪽.

2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外, 1992, 「앞의 글」(주 20), 468~470쪽.

25) 李清圭, 1993,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 『國史館論叢』 42, 10~12쪽.

26) 吳江原, 2000, 「西團山文化的 圈域에 관한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33; _____, 2000, 「中滿地域의 初期鐵器文化=泡子沿式文化的 成立과 展開樣相」, 『轉換期の 考古學』 III(韓國上古史學會第24回學術發表大會文集).

이와 같은 지역 구분은 유물복합상의 차이와도 부합하고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예를들어, 遼西地域은 石槨墓, 土壙墓, 磨光黑色土器, 長頸壺 등이, 遼東 北部地域은 石槨墓, 老城—東山型壺, 美松里型土器 등이, 遼東 南部地域은 支石墓, 雙房型土器 등이, 遼東 南端地域은 積石塚, 崗上型土器 등이, 吉林 南部地域은 大石蓋墓, 寶山型土器 등이, 吉林 中部地域은 石槨墓, 西團山型土器 등이, 吉林 西部地域은 土壙墓, 漢書型土器 등이, 吉林 東部地域은 石槨墓, 柳庭洞型土器 등이 복합하고 있어 유물면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확인된다.

그러면 이제 유물면에서는 청동도자 제형식을, 시간면에서는 앞서 획기한 각각의 공반단계를, 공간면에서는 위에서 구분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요령~길림지역 청동도자의 시공간적 양상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다.

공간성면에서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요령~길림 각 지역간의 격차가 현격하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요서지역의 경우 북부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수량의 청동도자가 분포하고 있는 반면, 요동 남부와 요동 동부 및 길림 동부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청동도자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길림 중부지역이 수위를 이루고 있는데, 길림시와 그 인근지역에 적지 않은 수량의 청동도자가 밀집 분포되어 있다. 기타 요동 북부와 요동 남단 및 길림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두 세 지점에 소량이 분포되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요령지역만을 놓고 볼 때, 사실상 요서지역에서만 청동도자가 성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단순분포와 수량면 뿐만 아니라 형식의 구비성면에서도 확인된다. 예를들어, 요서지역의 경우, 앞서 분류한 모든 형식이(F형 제외) 구비되어 있는 반면, 요동 북부지역에는 食刀柄銅刀(B형), 匙柄銅刀(C형), 齒柄銅刀(EII식), 環首銅刀(HI식)만이, 요동 남단지역에는 食刀柄銅刀만이, 길림 남부지역에는 食刀柄銅刀, 齒柄銅刀(EIII식), 釘孔柄銅刀(F형)만이, 길림 중부와 서부지역에는 釘孔柄銅刀와 齒柄銅刀(EIII식)만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요서지역을 청동도자가 전형적으로 발전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기타 형식을 요서 등지에서 특징적으로 제작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지역중 길림 중부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대별되는 독특한 분포양상을 보인다. 즉, 길림 중부지역에서는 관련지역 모두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齒柄銅刀와 釘孔柄銅刀가 압도적으로 유행한 양상을 보이는데, 齒柄銅刀의 경우 I단계의 EI식을 제외한 전체 25개 표본중 요서지역(和尚溝DM17, 水泉城子M7701)과 길림 서부지역(北崗子M5) 및 길림 남부지역(高古村M1)의 몇례 외에 18개(72%)가, 釘孔柄銅刀의 경우 전체 13개중 길림 남부지역(梨樹上屯)과 서부지역(東山頭M1)의 2례를 제외한 11개(85%)가 길림 중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형식(EIII식, F형)을 길림 중부지역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각 지역의 시간에 따른 공간양상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 관련지역의 시공

간적 양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요서지역의 경우 청동도자가 V단계를 제외한 I~IV단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작되는 반면,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단속적이거나 비교적 늦은 단계에 가서야 청동도자가 출현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요동 북부지역의 경우 I단계로부터 청동도자의 존재가 확인되나 곧이은 II단계에는 이러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길림 중부지역의 경우 길림 남부지역과 함께 V단계 관련지역내 청동도자 제작의 중심지역을 이루고 있기는 하나 III단계에 가서야 동종유물이 제작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요서지역은 청동도자의 형식, 수량, 지속성 등의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우월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요령~길림지역에서의 청동도자의 제작이 주로 요서지역의 기술적 영향 또는 요서지역의 고고학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撫順 望花의 고식 환수동도(HI식)가 같은 단계 遼西地域 魏營子式遺蹟群(綏中 前衛, 興城 楊河)의 동형식과 연결된다든지, 요서지역에서는 EI~EIII식의 치병동도가 I~III단계에 지속적으로 제작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보다 한 두 단계 늦은 III~V단계에 후기형식(EIII식)을 위주로 한 치병동도가 유행하였다든지 하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외 III단계 요동 북부지역의 유일한 예인 新賓 色家の 匙柄銅刀가 동질의 조각성과 비실용성 등의 면에서 新賓 일대의 토착집단이 요서지역(建平 樂家營子M901)의 것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든지, 역시 IV단계 요동 북부지역의 유일한 예인 沈陽 鄭家窪子 M6512와 鄭家窪子1地點의 II식 齒柄銅刀와 食刀柄銅刀가 청동도자는 물론 유물조합 전반에서 요서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든지, III~V단계 길림 중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유행한 III식 齒柄銅刀가 刃柄의 발생이라는 모티프면에서 II단계 건평 북부를 포함한 요서지역의 동형식의 것과 연결된다든지 하는 점 또한 고려된다.

〈표3〉 청동도자의 지역 및 단계별 분포

| 지역 형식 | 제I단계 | 제II단계 | 제III단계 | 제IV단계 | 제V단계 |
|----------|--------------------|---|---------|---------|------------|
| 요서 | DI, EI, G HI, J | A, B, C DII, EII, EIII, GI, GII, I | EII | HIII | - |
| 요동북부 | HI | - | C | B, EII | - |
| 요동남부 | - | - | - | - | - |
| 요동남단 | - | - | ? | B | - |
| 요동동부 | - | - | - | - | - |
| 길림남부 | - | - | - | - | B, EIII, F |
| 길림중부 | - | - | EIII, F | EIII, F | EIII, F |
| 길림서부 | - | - | F | EIII | F |
| 길림동부 | - | - | - | - | - |

그러나 요동지역을 제외한 길림지역의 경우, 적어도 청동도자면에서만은 大凌河流域의 遼西地域 보다는 老哈河流域(寧城, 建平 北部)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치병동도가 하가점상층문화의 전형유물이라는 점²⁷⁾과 대릉하유역의 치병동도 자체가 노합하유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²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외 老哈河를 포함한 西遼河上流域과 길림 중부지역의 중간지대인 길림 서부지역에도 Ⅲ식 치병동도가 분포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길림 중부지역의 Ⅲ식 치병동도가 대릉하유역의 요서지역이 아닌 노합하유역의 내몽고 동남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짐작케 한다.

정리하면, 요령~길림지역중 요서지역은 I~IV단계 다양한 형식의 청동도자가 적지 않아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청동도자의 제작이 성행한 지역으로, 요동 동부와 요동 남부 및 길림 동부 지역은 관련표본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동도자의 공백지역으로, 요동 북부와 남단지역은 청동도자의 제작이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취약지역으로, 길림 중부지역은 비록 출현시기와 제작형식이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치병동도와 정공병동도가 집중적으로 유행하였다는 점에서 요서 이외 중심적인 제작지역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제작면에서 요동지역은 요서지역과, 길림지역은 노합하유역과 연관성을 보인다.

V. 맺음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요령~길림지역중 청동도자의 제작이 가장 성행하였던 지역은 요서지역이다. 그런데 요서지역의 청동도자중 지역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형식, 즉 주변지역에서는 잘 보이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형식은 A~C형 뿐이다. 그나마 이 세 형식은 II단계에서만 확인된다. 즉, I단계에 공반하는 古式 環首銅刀(HI식), 古式 齒柄銅刀(EI식), 獸首銅刀(DI식), 鈴首銅刀(J형)는 하북성 북부 등지의 것이, II~III단계에 공반하는 齒柄銅刀(EIIEIII식), 釘孔柄銅刀(G형), 獸柄銅刀(DII식) 등은 하가점상층문화의 것이, IV단계에 공반하는 Ⅲ식 환수동도는 하북성 북부의 후기북방계유물이 교섭에 의해 유입된 것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요서지역의 경우 비파형동검을 위시한 관련 청동기유물군이 동지역 전반에 확산되던 II단계를 제외하고는 지역적인 형식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길림 중부지역의 경우에는, 비록 요서지역에 비해 늦은 단계에 가서야 청동도자가 제

27) 李康承, 1979, 「遼寧地方的 青銅器文化」, 『韓國考古學報』 6, 43~46쪽; 朱永剛, 1987,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 1, 107쪽.

28) 朝陽 木頭溝M1, 建平 水泉城子M7801, 喀左 和尚溝DM17의 표본이 각각 寧城 孫家溝M7371, 寧城 南山根M3, 敖漢旗 東井 무덤의 것과 대비된다는 점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劉國祥, 2000, 「夏家店上層文化青銅器研究」, 『考古學報』 4期, 487~489쪽.

작되기 시작하나, 독특한 지역형식(EIII, F형)을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같은 시기 요령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아푼툰 요서와 길림 중부지역 모두 청동도자가 유행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보이는데, 두 지역의 도자중 일부가 형태적 속성면에서 육류의 가공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일부 면에서는 청동도자의 성행요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 청동기 기술이 미흡하게 진행된 지역의 경우, 특정의 청동기유물과는 달리 위세적 성격이나 상징성이 약한 도자를 굳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청동기화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일찍부터 청동기화가 상당히 진전된 요서지역의 경우 청동도자의 제작이 성행한 반면, 늦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청동기 제작기술이 제한되어 있으면서 석기 제작의 전통이 강하게 지속된 요동지역의 경우 청동도자의 제작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단, 요동 북부와 남단지역에 비해 청동기화가 미약하게 진행된 길림 중부지역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독특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특별히 청동도자가 유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한 글

- 김용간·리순진, 1966, 「1965년도 신암리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 3기.
韓炳三, 1968, 「傳 龍興里出土 銅劍과 伴出遺物」, 『考古學』 1.
尹武炳, 1972, 「韓國 靑銅遺物の 研究」, 『白山學報』 12.
李康承, 1979, 「遼寧地方의 靑銅器文化」, 『韓國考古學報』 6.
박진옥, 1987, 「비파형단검문화의 발원지와 창조자에 대하여」,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李亨求, 1991, 「大凌河流域의 殷末周初 靑銅器文化와 箕子 및 箕子朝鮮」, 『韓國上古史學報』 5.
李清圭, 1993,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 『國史館論叢』 42.
安金槐 / 吳江原, 1998, 『中國考古(夏商周篇)』(白山資料院).
吳江原, 1999, 「서단산문화 석관묘유적의 연대편년」, 『先史와 古代』 13.
_____, 2000, 「西團山文化의 圈域에 관한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33.
_____, 2000, 「中滿地域의 初期鐵器文化=泡子沿式文化의 成立과 展開樣相」, 『轉換期의 考
古學』 III(韓國上古史學會第24回學術發表大會文集).
_____, 2001, 「夏家店上層文化 主要遺蹟의 年代編年」, 『清溪史學』 15.
_____, 2002, 「鄭家窪子型壺의 型式變遷과 地域的 分布樣相」, 『科技考古研究』 8.
李南珪, 1999, 「韓半島 古代國家 形成期 鐵製武器의 流入과 普及」, 『韓國古代史 研究』 16.

2. 중 문

- 李 濟, 1949, 「記小屯出土之靑銅器」, 『考古學報』 4冊.
陳蒙家, 1954, 「殷代銅器」, 『考古學報』 7冊.
康家興, 1955, 「吉林江北土城子附近古文化遺址及石棺墓」, 『考古通訊』 1期.
吉林省博物館, 1957, 「吉林江北土城子古文化遺址及石棺墓」, 『考古學報』 1期.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洛陽中州路(西工段)』(科學出版社).
朱 貴, 1960, 「遼寧朝陽十二臺營子靑銅短劍墓」, 『考古學報』 1期.
錦州市博物館, 1960, 「遼寧錦西縣烏金塘東周墓調查記」, 『考古』 5期.
旅順博物館, 1960, 「旅順口區后牧城驛戰國墓清理」, 『考古』 8期.
匡 瑜·方起東, 1961, 「吉林大安東山頭古墓葬清理」, 『考古』 8期.

- 沈陽市文物工作組, 1964, 「沈陽地區出土的青銅短劍資料」, 『考古』1期。
-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1965, 「1964-1965年燕下都發掘報告」, 『考古』11期。
- 沈陽故宮博物館·沈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75, 「沈陽鄭家窪子的兩座青銅時代墓葬」, 『考古學報』1期。
- 遼寧省博物館·朝陽地區博物館, 1977, 「遼寧喀左南洞溝石槨墓」, 『考古』6期。
- 錦州市博物館, 1978, 「遼寧興城縣楊河發現青銅器」, 『考古』6期。
- 沈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78, 「沈陽新樂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4期。
- 林 灑, 1980, 「中國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2期。
- _____, 1987, 「商文化青銅器與北方地區青銅器關係之再研究」, 『考古學文化論集』1輯。
- 吉林省文物工作隊, 1980, 「吉林長蛇山遺址的發掘」, 『考古』2期。
- 吉林地區考古短訓班, 1980, 「吉林猴石山遺址發掘簡報」, 『考古』2期。
-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 1982, 「吉林樺甸西荒山屯青銅短劍墓」, 『東北考古與歷史』1輯。
- 許彥文, 1982, 「吉林雙陽萬寶山石棺墓」, 『博物館研究』1期。
- 建平縣文化館·朝陽市博物館, 1983, 「遼寧建平縣的青銅時代墓葬及相關遺物」, 『考古』8期。
- 鄭紹宗, 1984, 「中國北方青銅短劍的分期及形制研究」, 『文物』2期。
- _____, 1991, 「略論中國北部長城地帶發現的動物紋青銅飾牌」, 『文物春秋』4期。
- _____, 1994, 「長城地帶發現的北方式青銅刀子及其有關問題」, 『文物春秋』4期。
- 吉林市博物館, 1984, 「吉林市郊二道水庫狼頭山石棺墓地發掘簡報」, 『北方文物』4期。
- 張 波, 1984, 「新賓縣永陵公社色家發現石棺墓」, 『遼寧文物』6期。
- 遼寧省博物館, 1985, 「遼寧凌源縣三官甸青銅短劍墓」, 『考古』2期。
- 王仁湘, 1985, 「帶鉤概論」, 『考古學報』3期。
- 陳振中, 1985, 「我國古代的青銅削刀」, 『考古與文物』4期。
- 吉林市博物館, 1985, 「吉林市泡子沿前山遺址和墓葬」, 『考古』6期。
- 吉林省博物館·吉林大學考古專業, 1985, 「吉林市騷達溝山頂大棺整理報告」, 『考古』10期。
- 段一平·李 蓮·徐光輝, 1985, 「吉林市騷達溝石棺墓整理報告」, 『考古』10期。
- 遼寧省博物館·朝陽市博物館, 1986, 「建平水泉遺址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2期。
- 廊房地區文物管理所·三河縣文化館, 1987, 「河北三河大唐廻 雙村戰國墓」, 『考古』4期。
- 曹桂林·許志國, 1988, 「遼寧法庫縣彎柳街遺址調查報告」, 『北方文物』2期。
- 翟德芳, 1988, 「中國北方地區青銅短劍分群研究」, 『考古學報』3期。
- 靳楓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 『考古學報』4期。
- _____, 1988, 「大凌河流域出土的青銅時代遺物」, 『文物』11期。
- 朱永剛, 1987,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1(文物出版社)。

- _____, 1991, 「西團山文化墓葬分期研究」, 『北方文物』3期.
- 賀 勇, 1989, 「試論燕國墓葬陶器分期」, 『考古』7期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89, 「遼寧凌源縣五道河子戰國墓發掘簡報」, 『文物』2期.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喀左縣博物館, 1989, 「喀左和尚溝墓地」, 『遼海文物學刊』2期.
- 鐵嶺市博物館, 1990, 「法庫縣彎柳街遺址試掘報告」, 『遼海文物學刊』1期.
- 李殿福, 1991, 「建平孤山子, 榆樹林子青銅時代墓葬」, 『遼海文物學刊』2期.
- 瑜 琮, 1991, 「齒柄式銅刀趨議」, 『北方文物』3期.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1, 「吉林九台市石砬山, 關馬山西團山文化墓地」, 『考古』4期.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1992, 「遼寧彰武平安堡遺址」, 『考古學報』4期.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1992, 「遼寧阜新平頂山石城址發掘報告」, 『考古』5期
- 陳 雍, 1993, 「西團山文化陶器的類型學與年代學研究」, 『青果集』1(吉林大學考古學系)
- 郭 珉 外, 1993, 「吉林省鎮賚縣坦途北崗子青銅時代墓葬清理報告」, 『博物館研究』1期.
- 郭大順, 1987, 「試論魏營子類型」, 『考古學文化論集』1.
- _____, 1993, 「遼河流域“北方式青銅器”的發現與研究」, 『內蒙古文物考古』1·2期.
- 張永平·于 嵐, 1993, 「磐石縣梨樹上屯西山發現一座青銅時代墓葬」, 『博物館研究』2期.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市博物館, 1993, 「吉林市猴石山遺址第二次發掘」, 『考古學報』3期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遼源市文管會辦公室, 1993, 「吉林省遼源市高古村石棺墓發掘簡報」
『考古』6期.
- 吳鐵軍, 1997, 「農安縣黃魚圈鄉發現的青銅時代墓葬」, 『長春文物』5.
- 劉國祥, 2000, 「夏家店上層文化青銅器研究」, 『考古學報』4期

3. 일 문

- 原田淑人·駒井和愛, 1931, 『牧羊城—南滿洲老鐵山麓及漢以前遺蹟』(東亞考古學會).
- 江上波夫·水野清一, 1935, 『內蒙古·長城地帶』(東亞考古學會).
- 秋山進午, 1968,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器文化の様相」(上), 『考古學雜誌』53-4.
- 林己奈夫, 1972, 『中國殷周時代の武器』(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 剛內三眞, 1982, 「朝鮮における銅劍の始源と終焉」, 『考古學論考』.

Classification and regional aspects of the bronze hand knife in Liaoning and Jilin provinces

Oh, Kang-Won

The bronze hand knife is classified into 10 types in Liao-Ning and Ji-Lin provinces in the Bronze Ages; Bronze hand knife with hanging knob in the handle(Type A), with handle similar to the kitchen knife handle(Type B), with spoon-shaped ornament on the end of the handle(Type C), with animal-shaped handle(Type D), with teeth-shaped projection in handle(Type E), with fixing nail hole for hanging(Type F), with hanging hole on the end of handle(Type G), with round ring on the end of handle(Type H), with hanger on the end of handle(Type I) and Bronze hand knife with bells on the end of handle(Type J), based on the shape of the handle as the first standard. Besides, in case of Type D, E, G and H of longer production period or with the broader width of attributes the other types, it is classified into two to three sub-types according to the detailed differences in the handle.

The bronze artifacts associated with knives are classified into five assemblage stages as a whole. The first stage, when remains of Weiyingsi and Gaotaishan and old-fashioned bronze hand knives(DI, EI, G, HI, J) assembled, runs from the 12th century B.C. to the 10th century B.C.. The second stage, as a stage where bronze hand knife of more advanced types(A~D, EII, EIII, I) and the remains related to the mandolin shaped dagger, runs from the 9th century B.C. to the middle 8th century B.C.. In the third stage, from late in the 8th century B.C. to early in the 6th century B.C., the mandolin shaped dagger, bronze dagger's handle and newly typed bronze hand knives(EIII, F) coexisted. The fourth stage, when late northern style remains and bronze hand knives(HIII) of the new types assembled, is from the middle 6th century to the 5th century. As a stage when native remains, Zhan-Guo Yan style remains and bronze hand knives(EIII, F) assembled, the fifth stage runs from the 4th century B.C. to the 3rd century B.C..

As for the regional aspects by stages, the bronze hand knives were distributed exclusively in Western Liao-Ning province in the first and second stages, then diffused to the Eastern Liao-Ning and middle part of Ji-Lin provinces from the third stage. In addition, no bronze hand knife was produced in the southern and eastern parts of Eastern Liao-Ning and eastern part of Ji-Lin. Therefore, the western Liao-Ning province can be viewed as the central place of the production of bronze hand knife, the middle part of Ji-Lin as secondary prevalent region. But the middle part of Ji-Lin province can be seen as the central place of the Type E and Type FIII. And considering many aspects, Type EIII is considered to be related to the reaches of the Lao-Ha river.

[Key Word] Liaoning, Jilin, bronze hand knife, classification, assemblage stages, regional aspects.